

타이어, 2008년 성과급 지급 차질

한국타이어, 수익성 악화로 지급 않기로 결정 ... 금호도 지급시기 연기

타이어 생산기업들이 자동차 생산기업의 감산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2008년 성과급을 주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지급을 연기하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2008년 감산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약 1달 월급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직원들에게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국타이어는 2008년 3/4분기에 당기순손실 148억원을 기록했다.

금호타이어도 2008년 말에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주기로 했던 성과급의 지급시기를 자금사정으로 말미암아 연기한 것으로 나타나 자동차는 물론 타이어 생산기업에도 불황의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1/06>